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인생은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1주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4. 참 놀랍도다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질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 주신 주현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호주의 거대한 산불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고, 지구촌을 생명력 넘치게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 인도자
- ▲ 교 독 문 121. 주현절(1)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광권희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130. 찬란한 주의 영광은 다 함께
- ▲ 성경봉독 이사야 42:1~9 1부: 인도자/2부: 류건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마중물찬양대
II. 축복 청파찬양대

말 씬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양연주 하나님의 은혜 이선행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
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공의를 세상에 세우는 일에 함께하십
시오.

다 함 께 : 아멘. 상한 갈대와 같이 곤고한 우리를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오
히려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
는 주님의 음성에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평정
심과 인내심을 품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빛의 사자들이 되겠
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쉼(속회방학)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

생명이란 호흡지간의 일이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세상 만물은 살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다 흠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잠시 허락받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다 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땅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미세 먼지가 온 산하를 뒤덮을 때면 숨 쉬기도 어렵고, 우울함이 안개처럼 우리 마음을 감싼다. 숨쉬기 어려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는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을 때 마음은 각박해지고 남을 위한 여백을 마련하지 못한다.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쁜 세상이다. 산과 들, 꽃과 바람, 구름과 시냇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한가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 루미는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각박해지고, 거칠어진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그 시간은 정화의 시간이고, 우리 속에 필요한 고요함을 채우는 시간이다. 때로는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머물 때 거친 호흡이 가지런해지니 말이다. 중국 명나라의 한 시인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 유익을 이렇게 말했다.

“폭포 소리를 들으면 속된 기운을 씻을 수 있고,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 번다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이런저런 수고스런 번뇌를 멈출 수 있고,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분별하여 이익을 추구하던 생각을 그치게 할 수 있다.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 어지럽던 마음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고삐 풀린 생각을 정돈할 수 있고, 독경 소리를 들으면 티끌세상을 향한 마음을 맑게 할 수 있

다.” (정민, 『마음을 비우는 지혜』, 73쪽)

이익을 추구하느라 닳고 닳은 마음, 속된 마음, 조급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무와 꽃 앞에 멈추어 서라. 산에 갈 수 없다면 공원에라도 나가 나무를 꼭 껴안아 보라.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생명 세상을 이룰 수 없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다. 참다운 발전이란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가는 것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가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시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 5:17)고 하셨다. 하나님의 숨을 모셔야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

기도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는 주님의 숨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만물은 깨어나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다 흠으로 돌아갑니다. 인류의 첫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살아 있음이 곧 은총입니다. 하지만 우울한 세상에 사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의 숨을 깊이 들이 마시고 싶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처럼 절망과 좌절의 나라에서 솟구쳐 올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 김기석,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 (꽃자리) 중에서

겨울 나무

이재무

이파리 무성할 때는
서로가 잘 보이지 않더니
하늘조차 스스로 가려
밭밑 어둡더니
서리 내려 잎 지고
바람 매 맞으며
송송 구멍 뚫린 한 세월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니
보이는구나, 저만큼 떨어진 친구
이만큼 가까워진 이웃
외로워서 더욱 단단한 겨울 나무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인호 고희은 곽수정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동희 전현선 김명숙 김명희
김미숙 김영호 김예준 김유석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김해선 노신후 문복순 박숙미
방종미 배강우 배삼순 변희영 사혜리 서동우 서정순 서혜원 송병찬 송인선 심창현
안성호 김희숙 양은혜 오이새 최은별 유무영 백현주 유지은 유하라 은종인 이우상
이계월 이우엘 이인용 오송경 이재선 이한림 김명희a이현순 임 정 임진엽 정성식
정성훈 조영순 최전성 최영은 최현선 최형민 추광미 한나영 한상경 홍윤선 무명1

감사헌금

국지연 김나름 김사라 안 건 김수정 김영윤 김영호 김옥곤 김인숙 김일재 김종락
박영신 김지혜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나영란 문금석 박경선 박기영 박성준 박옥순
박은지 박재영 이현정 박지선 방문성 박혜경 방종미 서담이 김정완 서미정 서지연
최병민 손천택 송남필 안현호 엄소현 오미숙 오이새 최은별 유중희 윤경석 윤영미
이건호a김보민 이광재 이상도 이상준 이순이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이태석 이현죽
임영화 임은영 임중수 장미란 장봉수 전아영 정영례 정자영 노윤지 정확성 조수아
조옥분 조홍작 정세진 조윤후 주은경 채일석 최병민 서지연 최성은 최옥자 최정우
이윤숙 허명선 홍기섭 황현성 이오복 무명7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용진 박효선 김향자 문복순 오은영 윤미경 수진 최규희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속회 : 속 모임은 1월과 8월에는 쉽니다.
2. 재무교육 : 오늘 오후 1시30분 세미나실에서 각 부서와 모임의 회계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2019년 회계 장부를 지참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광희문교회에서 있습니다.
4. 구역회 : 구역회가 다음 주일(19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5. 구역인사위원회 : 다음 주일 구역회 직후에 구역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6. 모집 : 1부 찬양대에서 봉사할 찬양대원과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7. 새책 : 김기석 목사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1년을 묵상할 수 있는 책(3권 1세트)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 「사랑의 레가토」,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8. 연탄나르기 : 사회봉사부에서 2월 1일(토) 10시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명 필요. 선착순)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회봉사부장 안홍숙 장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10-3342-7578)
9. 1부 예배 : 2부 예배 시 공간이 협소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1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0.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내려 받는 법 :

-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또는 ID/PW)로 로그인 (홈택스에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② 로그인 후연말정산'이미지를 클릭
- ③ 간소화자료조회 메뉴의바로가기'버튼을 클릭
- ④ 귀속연도가 2019년인 것 확인하고'기부금 돋보기'버튼을 클릭
- ⑤ 하단에 조회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항목을 체크한 후'PDF다운로드'클릭해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인쇄하기'버튼을 클릭해서 출력

* 떡, 커피 대접 : 김영호 손미자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살전 4:7~12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장원호	황현성	이범석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임주빈	이국노 박미영	최현옥	김신실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기영		
식당봉사	오늘	이현숙 이은미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김태한	임당재 신정훈
	다음주	정현주 이수정 이수자	최영미 이나라	김현정	안종일 최병민
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오늘) 4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3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